

『민음의 기도는』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글귀를 읽고 우리가 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무슨 일든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찬송가 36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이혼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한다. 야고보 역시 기도에 대해 강조한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기도하기	기도는 뱃속 아기가 탯줄을 통해 엄마의 생명과 감정과 사랑을 전해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력,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줄과 같은 기도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이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되 기도를 중요하게 다룬다. 야고보서의 시작과 마무리는 모두 기도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성경읽기	오늘 본문은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병든 자도 그 아픔과 고난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또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다시' 기도하는, 즉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강조한다. 대충 해보고 쉽게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기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서로 마음을 모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집안이나 나라나 사랑이 많아야 한다. 많이 사랑 받고 많이 사랑해야 한다. 한 집안에서 벌어진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냄새나는 발이 향기 나는 발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게 사랑하는 집안이 많이 사랑하는 집안으로 변화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찬송가 582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잘 알지 못했다. 그의 잘못은 예수님이 단지 합당한 자와 합당치 못한 자를 구별하는 분이라고 경솔하게 단정해 버린 데 있었다. 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대로 오신 구주이심을 알아 보았어야 했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 했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되레 예수님이 잘못하셨다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셋째로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살피지 않으면서 오만하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偽善)이었다.
기도하기	시몬은 그녀가 죄의 빛을 탐감 받고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그녀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다. 그렇지만 시몬은 자신이 헌신하는 만큼만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악의 많은 빛을 청산하는 크신 사랑이다. 그 사랑은 많이 받고 많이 줄수록 좋다. 그녀는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눈물을 흘렸고,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축합을 부었다.
성경읽기	그녀의 헌신은 어떻게 집안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많이 사랑하는 집안이 부흥하고, 많이 사랑하는 나라가 부흥한다.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알고 크게 감사해야 한다.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드온의 신앙』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 주셨다.
찬송가 35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드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첫째, 기드온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세가 있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은 "보소서 나와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삿 6:15)"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무능함과 약함과 자기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타난다.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기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기	둘째,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기를 가진 자였다(삿 7:7~8).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와 싸워 승리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자 300명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다.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이다.
성경읽기	셋째,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자 기드온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삿 8:23)"라고 말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드온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59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이다.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맥킨리 대통령은 "첫째는 교회의 예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 가정의 식탁이 나에게 행복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가정인지 생각해보자.

첫째, 온 가족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다(2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맘 흘렸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또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마음과 몸이 약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다면 복되고 형통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제대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일원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게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정이다(3~4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가장 좋은 영양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가정을 만들기 바란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셋째,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섬김과 나눔의 본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을 걸을 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의 오솔길

하나님을 찬양하라

I 찬양이란?

구약의 히브리 단어들 중에 찬양 또는 찬송을 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할랄'과 '바락'이 있습니다. 먼저, '할랄'은 '자랑하다·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그 추종자들이 칭송하고 따르며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자랑하듯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백성으로서 왕의 왕을, 종으로서 주님을,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바락'은 '무릎꿇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축복(bless)의 어원이 피(blood)에서 나왔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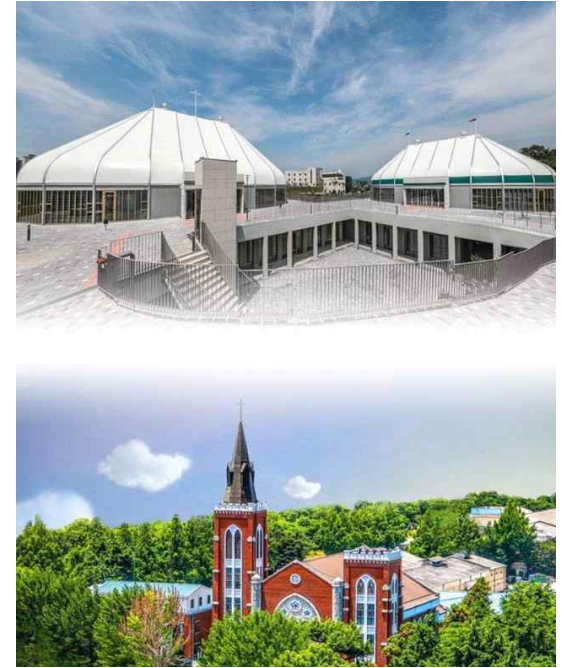
II 언제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시간과 때를 못 봐야 두시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든 한 낮이든 저녁 한 밤 중이라도 자유롭게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감정의 날씨에 지배를 받으며 찬양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42편 11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시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울때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III 어디서 찬양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9편 5절에 "집에서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바트 왕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집이나 작업 현장, 학교나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거리를 걷거나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섬기고 있는 모든 생활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To be continued

『이순창목사(연신교회) 칼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